

“가족에 대해 다르게 말하기, 대안적 상상력, 무지개포럼”

일시: 3월 6일 (토) 오후 3시
장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대학로)
학생회관 제1강의실

순서

-기조발제: 가족에 대해 다르게 말하기,
대안적 상상력

(타리_다름으로달은여성연대 간사)

-전쟁은 가족을 부른다

(진경_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간사)

-이성애중심적 가족주의 안에서

레즈비언 살아남기

(케이_한국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간사)

-장애여성에게 '다양한 가족'과 '평등한 가족'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박영희_장애여성공감 상임대표)

-배제되는 가족: 기지촌 혼혈인 가족의 삶

(한영희_두레방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연구원)

-이주여성문제 관련 사례발표

(이강전_필리핀가족모임 대표)

주최: 다름으로달은여성연대

후원: 서울대 의대 여성학동아리 '옴트'

다름으로달은여성연대 소개

'다름으로달은여성연대'는 2003년 3.8 여성의 날 무지개 시위를 시작으로 여성의 다름과 또 달음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가 '다름'을 말하는 것은 개개의 여성이 처한 다른 상황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른 성정체성, 서로의 다른 장애의 조건, 서로의 다른 삶의 방식을 직시하고 다름을 말합니다. 비장애 여성에 의한 장애여성 차별, 이성애자 여성에 의한 성소수자 여성 차별, 삶의 조건에 따른 여성간의 차별, 그것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가 다시 '달음'을 말하는 것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함입니다. '다름'을 이유로 '차별'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작지만 큰 목소리'를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중심으로 편입해서 권력에 의존하고, 권위적이며, '다름'을 묵살하는 운동방식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소수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중심과 주변의 위계를 허물며 다름을 인정하고 긍정할 것입니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 나이 등에 기반한 '다름'으로부터 비롯되는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전쟁과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에 저항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다름'은 우리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다름으로달은여성연대는 모든 차별과 폭력이 없어지는 세상을 꿈꾸며,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우리들과 달은 여성들과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름으로달은여성연대

:: 전화 |

:: 팩스 |

:: 이메일 |

:: 홈페이지 |

:: 주소 |

:: 후원계좌 |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강화하는
모든 차별과 폭력을 반대한다!
장애여성도 가족을 다양하게 구성할 권리가 있다!
-혈연, 비장애인 중심의 가족을 강요하지 말라!
정상가족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이
근절되지 않는 한, 일상적인 평화란 없다!
혈연 중심, 이성애 중심의
정상 가족 중심주의를 반대한다!

WOW! 또 다른 세상을 공감하기

3.8
여성
무지개시위
2004

일시: 3월 7일(일) 오후 4시 30분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WOW!또다른 세상을 공감하기 3.8 여성 무지개시위” 프로그램

사회_복주, 니모

풍물공연 및 길놀이_여성이반풍물패 바람소리

퀴즈대회_진행: 케이, 반짝

발언_카씨, 조이여울, 배경내, 김도경

노가바와 울동_케이, 영란, 주희, 누에,

무지개, 신우, 시은, 고구마

연극_린, 김상, 반짝

초대가수 공연 _이자람

퍼포먼스_니모, 슈크림, 시아, 토마, 호수,

유키, 또랑, 찬이

성명서낭독_타리 외

주최: 다름으로달은여성연대

후원: 건국대학교 총여학생회,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관악여성모임연대, 관악인문대

여성모임연대, 도서출판 이프,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 비대위,

봄2003,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여성주의

저널 일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이화여대 여성위원회

(가나다 순, 3월 1일 현재)/시민운동지원기금

'분홍 무지개'

(원곡: 분홍립스틱)

말하지 못한 그 이름 이제는 말해 볼거야

상큼한 그 이름 난 레즈비언

우리는 장애여성 있었지만 없던 이름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

전쟁반대는 여성들의 경험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모두가 원하는 평화

서로가 다르지만 달아있었던 우 리들

이제는 함께하는 여성들의 연대

삼팔 이날은 소수여성들 무지개 깃발아래 외치겠어요

우리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차별과 억압들을 멈추겠어요

내일이 오면 무지개 같은 다양한 인정되는 또다른 세상

우리 드디어 세상을 향해서 자유의 목소리로 외쳐요

'차별조장하지 말아요'

(원곡: 얼굴씨푸리지 말아요)

차별조장하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너무너무 뻑뻑해요

소수라고 느껴질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자매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진 않을거예요

때로는 모진 억압에 좌절도 하겠지만

그래도 자매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여성세상 그날까지 함께 함께 함께가요

